

#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관련 영향요인

이영미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간호학과

## SNS Addiction Tendency and Its Related Factors among University Students

Young-Mee Lee

Dept. of Nursing, K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병리적 자기에,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정도를 알아보고 SNS 중독 경향성 관련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385명의 대학생으로 부터 수집된 자료는 t test, ANOVA, Scheffe's test와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이 되었고 단계별 회귀분석이 실시되었다. SNS 중독경향성의 수준은 1.78점이었고, 병리적 자기에는 2.45점이었고, 스트레스는 2.75점 그리고 사회적 지지정도는 3.26점이었다.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SNS중독경향성 차이는, 성별( $F=26.525, p<.001$ ), SNS사용시간( $F=24.938, p<.001$ ), SNS과다사용 여부( $F=72.083, p<.001$ ), SNS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유무( $F=13.075, p<.001$ ), 가족의 경제적 수준( $F=3.409, p=.034$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변수들 간의 상관분석을 보면, SNS중독경향성은 병리적 자기에, 스트레스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사회적 지지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SNS중독경향성의 영향변수로는 병리적 자기( $\beta=.335, p<.001$ ), SNS사용시간( $\beta=.222, p<.001$ ), SNS과다사용 여부( $\beta=-.262, p<.001$ ), 성별( $\beta=.159, p<.001$ ), 사회적 지지( $\beta=-.125, p=.002$ ), 학교성적( $\beta=.088, p<.029$ )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대상자의 SNS중독경향성을 39.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은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을 감소시키기 위한 간호중재가 필요하며, 대학생을 위한 중재에서 이런 변수들에 대한 고려가 요구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pathological narcissism, social support, and stress among university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via questionnaires from 385 students and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ANOVA, Scheffe's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WIN 19.0 program. The levels of SNS addiction tendency depended on gender, SNS usage time, SNS over-usage, health problem, and household economic status. SNS addiction tendency was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pathological narcissism, social support, and stress. Influential factors that affect SNS addiction tendency were pathological narcissism, SNS usage time, SNS over-usage, gender, social support, and academic performance, which explained about 39.4% of the varianc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nursing interventions are necessary to improve SNS addiction tendency, and also suggesting that such variables should be carefully considered in intervention programs for university students.

**Keywords** : pathological narcissism, SNS addiction tendency, social support, stress, university student

## 1. 서론

SNS는 Social Network Service의 약자로 대표적 SNS로는 페이스북, 카카오톡, 트위터, 블로그 등이 있다. 이는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는 접근성과 저렴한 데이

### 1.1 연구의 필요성

본 논문은 2016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학술연구구성비로 연구하였음(no. 620160073)

\*Corresponding Author : Young-Mee Lee(Kangwon National University)

Tel: +82-10-4591-2617 email: ymlee@kangwon.ac.kr

Received October 31, 2016

Revised November 9, 2016

Accepted December 8, 2016

Published December 31, 2016

터 사용료 등으로 SNS사용에 급성장을 하여 전 세계적으로 3억 5,000만명이 페이스 북에 대한 중독으로 보고되며[1], 우리나라에서도 2015년 인터넷 모바일 이용실태조사를 통해 80.9%가 SNS를 이용하고 있어서 전년의 67.8%에 비해서 13.1%가 상승하였다고 보고되고 있다[2].

SNS는 새로운 미디어 형태로 아직 SNS중독에 대한 통합된 이론과 준거가 정립되지는 못하였지만[3], 미국 정신장애 진단 편람에서는 알코올 등의 물질 중독 외에, 특정행위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나 충동, 충동조절의 문제에 의해 반복되는 특정행위에 대한 중독 등을 중독개념에 포함하고 있다[4]. 최근의 충동조절 장애에 대한 이론 맥락에서 SNS중독이 논의되고 있는 것이다[5-6]. SNS는 술, 담배, 성관계보다 더욱 심한 중독성을 보이며,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7-8].

SNS는 쉽게 중단할 수 없는 피상적 ‘우정’의 기반 위에 형성되고 있고, 더욱이 자기애자들은 현신적인 것보다 피상적인 맥락에서 잘 기능하기 때문에, 자기애자들이 사회적 연결을 통해 자기를 조절하는데 유용하게 사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9].

또한, 병리적 자기애는 자기에 대한 지나친 사랑의 기저에서 자기에 대한 불확실감과 열등감이 있어서, 긍정적 자기상에 대한 위협이나 실망이 있을 때 부적응적인 방식으로 대인관계에 문제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10]. 이런 병리적 자기애가 SNS중독경향성과 유의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11].

한편, 일상에서 스트레스가 충동조절과 관련이 있으며,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스트레스 자체보다는 그 자극을 다루는 개인의 인지적 평가와 동일한 자극에서도 개인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정도가 다른 스트레스를 경험한다고 하였다[12].

선행연구에서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 중독의 위험을 높이며, 결과적으로 더 큰 서비스의 요구를 유발해 스트레스와 인터넷 중독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고 있다[13-15].

특히 SNS가 휴대폰에 인터넷의 특성이 결합되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서비스임을 고려할 때 사회적 지지에 대한 추구를 많이 할수록 SNS 중독 경향성은 높아질 것이라고 하였다[16].

그러므로 SNS 중독경향성, 병리적 자기애, 사회적지

지 및 스트레스는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과 같은 충동조절과 관련한 중요한 변인으로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변인들을 함께 분석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중독경향성, 병리적 자기애, 사회적지지 및 스트레스 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SNS 중독경향성을 개선시키고 관리하는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 1.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병리적 자기애,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SNS 중독경향성 관련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병리적 자기애,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SNS 중독경향성, 병리적 자기애, 스트레스 및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셋째, SNS 중독경향성 관련 영향요인을 파악한다.

## 2. 연구의 방법

### 2.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연구자가 강원도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기 보고식 질문지를 이용하여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자료수집은 해당 학과의 학과장에게 직접 방문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였고, 설문 조사를 허락받았다. 대상자들에게는 윤리적 측면을 고려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여, 서면 동의서를 받았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구도중에 참여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철회가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연구 참여에 동의한 총 390명의 대학생들이 설문에 응해주었으며, 2016년 9월 10일에서 9월 20일 사이에 자료가 수집 되었다.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효과크기는 중간크기인 .15, 유의수준 .05, 검정력 .95를 기준으로 하였을 때 분석에 필요한 최소대상자 수는 320명이 제시되어 본 연구에서의 표본 수는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설문지 390부 중 390부가 회수되었고, 기술된 내용이 부실하거나 불성실한 자료의 5부를 제외한 385부(98.7%)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 2.2 측정도구

### 2.2.1 일반적 특성

일반적 특성은 연령, 성별, 성적, 상담할 친구나 가족 유무, SNS사용시간, 경제수준, SNS과다사용에 대한 인식, SNS사용관련 건강상의 문제로 구성되어 있다.

### 2.2.2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

본 연구에서는 Cohen, Kamark & Mermelstein[17]이 개발하였던 지각된 스트레스 척도를 Cohen & Williamson[18]이 요인 분석을 시행하여 단축형으로 수정한 것을 Lee[19]가 번안하였던 척도를 이용하였다.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항상 그렇다’의 5점까지로 5점 Likert 척도로 총 1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 중 4번, 5번, 7번, 8번 문항은 역문항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지각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ohen & Williamson[18]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는 .78이었으며, Lee[19]의 연구에서는 .83이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는 .71이었다.

### 2.2.3 SNS 중독경향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SNS 중독경향성 척도는 Young[20]이 제작한 인터넷 중독진단 도구의 8문항과 한국정보문화진흥원에서 만든 K척도[21]의 20문항을 근거로 Oh[22]가 수정한 척도를 이용하였다. 이는 총 11문항으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로 된 4점 Likert척도이다. 각 문항의 점수를 합산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SNS중독경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한다. Oh[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계수는 Cronbach's alpha는 .89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894이었다.

### 2.2.4 병리적 자기에 척도

본 연구에서는 Pincus와 Ansell[23]이 병리적 자기에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도구이다. 이 도구를 Yang과 Kwon[24]이 번안하고, 타당화한 한국판을 사용하였다. 총 35문항으로 ‘전혀 나 같지 않다’의 0점에서부터 ‘매

우 나 같다’의 5점까지의 6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는 총 문항의 평균을 사용한다. 전체 점수가 높을수록 병리적 자기에 성향이 높음을 의미한다. Yang과 Kwon[24]의 연구에서 PNI의 내적합치도 계수인 Cronbach's alpha는 .92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48로 나타났다.

### 2.2.5 사회적지지 척도

본 연구에서는 Zimet, Dahlem과 Farley[25]이 개인이 인지한 사회적 지지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MSPSS)로 Oh[22]가 번안한 것을 이용하였다. 이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의 4점까지의 4점 Likert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이 지각하고 있는 사회적지지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신뢰도는 Oh[22]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는 .87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는 .911이었다.

## 2.3 자료분석

본 연구의 자료분석은 SPSS Win 19.0 version program을 이용하여 각 척도의 신뢰도 검정을 위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하였고, 일반적 특성, SNS 중독 경향성, 병리적 자기에,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정도는 기술적 통계를 실시하였으며,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 수준의 차이는 t-test, ANOVA, Scheffe's test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SNS 중독경향성, 병리적 자기에,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정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사용하였다. SNS 중독경향성 영향요인을 파악하기위해 다중 공선성 진단 후 Stepwise 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 3. 연구의 결과

###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는 나이는 평균 21세 이었고, 남학생이 207명(53.8%), 여학생이 178명(46.2%)이었다. 성적은 상위수준이 50명(13.0%), 중간수준이 269명(69.9%), 하위수준이 66명(17.1%)이었다. 평소 상담할 친구나 가족이 있는 경우는 371명(96.4%), 없는 경

우는 14명(3.6%)이었다. SNS를 이용하는 시간은 30분 미만인 경우가 40명(10.4%)이었고, 30분 이상에서 2시간 미만인 경우는 179명(46.5%), 2시간이상에서 5시간 미만인 경우는 123명(31.9%)이었고, 5시간이상인 경우가 43명(11.2%)으로 나타났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SNS를 과다사용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134명(34.8%)이고,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251명(65.2%)로 나타났다. SNS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가 49명(12.7%)이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336명(87.3%)로 나타났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상위수준이 16명(4.2%)이었고, 중간수준이 295명(76.6%)이었고, 하위수준이 74명(19.2%)로 나타났다[Table 1].

### 3.2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차이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SNS중독경향성 차이는, 성별( $F=26.525, p<.001$ ), SNS사용시간( $F=24.938, p<.001$ ), SNS과다사용 여부( $F=72.083, p<.001$ ), SNS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유무( $F=13.075, p<.001$ ), 가족의 경제적 수준( $F=3.409, p=.034$ )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성별에 따른 SNS중독경향성의 차이에서는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SNS사용시간에 따른 차이는, Scheffe's test로 검정한 결과로 사용시간이 길어질수록 SNS중독경향성의 점수가 높았다. SNS과다사용여부에 따른 차이로는

과다사용하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SNS중독경향성의 점수가 높았다. SNS사용으로 인한 건강상의 문제 유무에 따라서는 문제가 있는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SNS중독경향성의 점수가 높았다. 가족의 경제적 수준에 따라서는 중간수준의 학생이 SNS중독경향성 점수가 높았으며, 상위수준과 하위수준의 학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 3.3 대상자의 각 변수들과의 상관관계

대상자의 SNS 중독경향성, 병리적 자기애,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대상자의 스트레스는 병리적 자기애( $r=.345, p<.001$ )와 SNS중독경향성( $r=.271, p<.001$ )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사회적 지지( $r=-.133, p=.009$ )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대상자의 병리적 자기애는 SNS중독경향성( $r=.425, p<.001$ )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사회적 지지( $r=-.195, p<.001$ )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SNS중독경향성은 사회적 지지( $r=-.196, p<.001$ )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상자는 사회적 지지가 낮을수록,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병리적 자기애가 높을수록 SNS중독경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Table 1. Mean scores of SNS addiction tendency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385)

characteristic		SNS addiction tendency			
		N(%)	M±SD	t(F)	p
Age(yr)			21.38±2.83		
Gender	Male	207(53.8)	1.66±0.52	26.525	0.000
	Female	178(46.2)	1.93±0.51		
Academic performance	High	50(13.0)	1.65±0.52	1.750	0.175
	Middle	269(69.9)	1.81±0.54		
	Low	66(17.1)	1.80±0.50		
With family /friends	With	371(96.4)	1.79±0.53	0.289	0.591
	Without	14(3.6)	1.86±0.65		
SNS using time	Less than 30minutes(a)	40(10.4)	1.29±0.39	24.938	0.000
	30minutes~less than 2hours(b)	179(46.5)	1.72±0.49		
	2hours~less than 5hours(c)	123(31.9)	1.94±0.50		
	More than 5hours(d)	43(11.2)	2.09±0.50		
SNS over usage	Yes	134(34.8)	2.07±0.49	72.083	0.000
	No	251(65.2)	1.63±0.49		
Health Problem	Yes	49(12.7)	2.04±0.50	13.075	0.000
	No	336(87.3)	1.75±0.53		
Household economic status	High	16(4.2)	1.66±0.55	3.409	0.034
	Middle	295(76.6)	1.83±0.52		
	Low	74(19.2)	1.66±0.56		

† Scheffe's test for post-hoc comparison, SNS : Social network system

Table 2. Correlation among variables (n=385)

Variables	Stress r(p)	Pathological narcissism r(p)	SNS addiction tendency r(p)	Social support r(p)
Stress	1	.345 (.000)	.271 (.000)	-.133 (.009)
Pathological narcissism		1	.425 (.000)	-.195 (.000)
SNS addiction tendency			1	-.196 (.000)
Social support				1

Table 3. Variables influencing SNS addiction tendency (n=385)

Variables	B	SE	$\beta$	t	p
(Constant)	1.145	.266		4.308	<.001
Pathological narcissism	.329	.041	.335	8.098	<.001
SNS using time	.143	.028	.222	5.138	<.001
SNS over usage	-.292	.048	-.262	-6.135	<.001
Gender	.169	.044	.159	3.856	<.001
Social support	-.138	.045	-.125	-3.055	.002
Academic performance	.085	.039	.088	2.196	.029

$R^2=.404$ , Adj.  $R^2=.394$ ,  $F=42.563$ ,  $p<.001$

### 3.4 SNS 중독경향성 영향요인

대상자의 SNS 중독경향성의 영향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중 회귀분석을 시행하기 전 독립변수들의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을 확인하기 위하여 공차한계(Tolerance Limit)와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분석해 본 결과 공차한계의 값이 0.848~0.980로 0.1 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는 1.021~1.180로 10이하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잔차의 독립성 검증을 위해 Durbin-Watson 값을 구한 결과 1.969로 나타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 특성에 따라 SNS 중독경향성 차이를 나타낸 성별, SNS사용시간, SNS과다사용 여부, SNS사용으로 인한 건강문제 유무, 가족의 경제수준과 제 변수인 SNS 중독경향성에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던 스트레스, 병리적 자기에 및 사회적 지지를 단계적 회귀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회귀모형이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42.561$ ,  $p<.001$ ). 대상자의 SNS 중독경향성의 영향변수로는 병리적 자기에( $\beta=.335$ ,  $p<.001$ ), SNS사용시간( $\beta=.222$ ,  $p<.001$ ), SNS과다사용 여부( $\beta=-.262$ ,  $p<.001$ ), 성별( $\beta=.159$ ,  $p<.001$ ), 사회적 지지( $\beta=-.125$ ,  $p=.002$ ), 학교성적( $\beta=.088$ ,  $p<.029$ )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대상자의 SNS 중독경향성을 39.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 3. 고찰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병리적 자기에,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SNS 중독경향성 관련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프로그램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시도되었다.

우선, 일반적 특성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SNS 중독경향성의 차이에서는 여학생의 점수가 남학생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이는 Baek과 Cho[26]의 연구와 Kim[27]의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와 유사한 결과였으며, SNS 중독경향성 개선을 위한 여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학제적인 프로그램중재개발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SNS 중독경향성, 병리적 자기에,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정도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SNS 중독경향성은 병리적 자기에와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는데 이는 Jo[11]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선행연구[28, 29]에서 자기에적 웅대성의 특징이 강조되어지는 자기에적인 사람들이 SNS 활동을 더 활발하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즉 병리적 자기에 성향이 강할수록 SNS 금단과 SNS에 대한 집착이 나타나고 SNS와 과잉소통하려고 하고, 그에 몰입하였으며, SNS에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 SNS 중독경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

고한 연구결과[11]를 지지하는 내용이었다.

또한, SNS중독경향성과 사회적 지지와의 상관관계에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선행연구[22]에서 사회적 지지와 SNS중독경향성과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것과는 연구의 결과가 일치하지 않은 결과이었다. 이런 연구결과의 차이를 분석해보면,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평균나이 21세의 대학생이었고, 선행연구[22]에서의 대상자들은 25세 이하가 51%를 차지하였으며, 26세 이상이 49%를 차지하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었기 때문에 대상자의 특성이 연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두 집단을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SNS중독경향성과 스트레스는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이는 Lim 등의 연구[30]에서 스마트폰 중독과 스트레스와의 관계에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확인한 결과와는 유사한 결과이었다. 또한 선행연구[31,32,33,34]에서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스마트폰의 중독의 위험성이 있음을 확인한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결과이다. 이는 대학생들의 스트레스가 SNS를 사용함으로써 스트레스에 대해 대처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이들의 SNS사용과 관련된 폐해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으므로[7-8], 이들이 off line 상에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적절한 눈높이 맞춤형에 해당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SNS중독경향성의 영향변수로는 병리적 자기애, SNS사용시간, SNS과다사용 여부, 성별, 사회적 지지, 학교성적으로 나타났으며, 이 변수들은 대상자의 SNS중독경향성을 39.4%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학생들의 SNS중독 경향성에 대한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을 할 경우, 이런 변수들을 기반으로 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SNS중독 경향성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 4. 결론

본 연구는 대학생의 SNS 중독경향성, 병리적 자기애, 스트레스 및 사회적지지 정도를 파악하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고, SNS 중독경향성의 영향요인을 파악하여 SNS중독경향성을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개발에 기초자료를 활용하기 위한 연구이었다. 385명의 대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SNS사용시간이 길수록, SNS과다사용 학생이, SNS사용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가족의 경제적 수준이 중간 수준에 해당하는 학생이 SNS중독경향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다학제적인 접근을 통하여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에 대한 개선에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

또한 SNS중독경향성은 사회적지지, 병리적 자기애 및 스트레스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SNS중독경향성 감소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시 이런 요인으로 포함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다. 또한 SNS중독 경향성의 관련 영향요인으로는 병리적 자기애, SNS사용 시간, SNS 과다사용 여부, 성별, 사회적지지 및 학교성적이었고, 이는 39.4%의 설명력을 보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대학생의 SNS중독경향성을 개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에 기여하기를 바라며, 추후 SNS중독경향성의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직접 적용한 연구를 실시하기를 제안한다.

#### References

- [1] Amy. Summers, "Facebook Addiction Disorder – The 6 Symptoms of F.A.D", cited from <http://www.adweek.com/socialtimes/facebook-addiction-disorder-the-6-symptoms-of-f-a-d/61408> accessed May, 2, 2012.
- [2] J. H. Lee, Upkorea news cited from <http://www.upkorea.net/news/articleView.html?idxno=54473> accessed november, 24, 2015.
- [3] D. J. Kuss, & M. D. Griffiths,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addiction-a review of the psychological literature", International Journal of Environment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vol. 8, pp. 3528-3552, 2011. DOI: <https://doi.org/10.3390/ijerph8093528>
- [4]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Text Revision: DSM-IV-TR", Washington DC., 2000.
- [5]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 DSM 5", Washington DC: 2013.
- [6] E. Echeburúa, P. deCorra, "Addiction to new technologies and to online social networking in young people: A new challenge", Addictions, vol. 22, no. 2, pp. 91, 2010.
- [7] W. Hofmann, K.D. Vohs, R.F. Baumeister, "What people desire, feel conflicted about, and try to resist in everyday life", Psychology Science, vol. 26, no. 6, pp.

- 582-588, 2012.  
DOI: <https://doi.org/10.1177/0956797612437426>
- [8] Y, K. Oh,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on Loneliness,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Korea counseling university, 2012.
- [9] L. Buffardi, W. Campbell,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Web Si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4, pp. 1303-1314, 2008.  
DOI: <https://doi.org/10.1177/0146167208320061>
- [10] Pincus, A. L. & Ansell, E. B.,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21, no. 3, pp. 365-379, 2009.  
DOI: <https://doi.org/10.1037/a0016530>
- [11] D. H. Jo.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proneness on pathological narcissism, emotion expressiveness, directivity for friends, and the way of stress cop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4.
- [12] Lazarus, R. S., & Folkman, S.,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Publishing Company, 1984.
- [13] S. Y. Suh, Y. H. Lee, "The Relationships between Daily Hassles, Social Support, Absorption Trait and Internet Addiction",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26 no. 2, pp. 391-405, 2007.
- [14] S. Y. Kim, "The impact of self, stress and the internet use control on the internet addiction : among on the adult online use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Yonsei University. 2003.
- [15] S. J. Lee, G. A. Kim, C. H. Hong, "The relation between internet use motivation, coping and pathological internet use :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Korean Journal of Woman Psychology*, vol. 16, no. 3, pp. 265-284, 2011.  
DOI: <https://doi.org/10.18205/kpa.2011.16.3.002>
- [16] D. Y. Jo,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Proneness on Pathological Narcissism, Emotion Expressiveness, Directivity for Friends, and the Way of Stress Coping :focused on gender differ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ul, Catholic university, 2014.
- [17] Cohen, S., Kamark, T., & Mermelstein, L., "A global measure of perceived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vol. 24, no. 4, pp. 385-396.1983.  
DOI: <http://dx.doi.org/10.2307/2136404>
- [18] Cohen, S., & Williamson, G., "Perceived Stress in a probability sample of the United states". In S. Spacapan & S. Oskamp(Eds). *The Social psychology of health*. Newbury Park, CA: SAGE. 1998.
- [19] Lee, J. E., "The Effects of Self-Complexity and Self-Efficacy on Depression and Perceived Str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Aju University, Suwon. 2005.
- [20] Young, K. S. "Internet addiction diagnostic questionnaire (IADQ)," 1996. <http://netaddiction.com>
- [21] National Internet Development Agency of Korea, "2012 Internet Use Survey," 2012.
- [22] Y. K. Oh. "A study on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on loneliness, depressi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and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rea Counseling University, 2011.
- [23] Pincus, A.L. & Ansell, E. B. "Initial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the pathological narcissism inventory". *Psychological Assessment*, vol. 21, no. 3, pp. 365-579, 2009.  
DOI: <https://doi.org/10.1037/a0016530>
- [24] J. W. Yang, S. M. Kwon. "Emotional characteristics of narcissists with grandiosity and vulnerability,"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 35, no. 1, pp. 215-242, 2016.
- [25] Zimet, G. D., Dahlem, N. W., Zimet, S. G. & Farley, G. K. "The multidimensional scale of perceived social support.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vol. 52, pp. 30-41, 1988.  
DOI: [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https://doi.org/10.1207/s15327752jpa5201_2)
- [26] S. S. Baek, J. Y. Cho. "The influence of SNS addiction tendency and mental health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7 pp. 77-85,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7.77>
- [27] J. H. Kim. "Comparison between SNS addiction proneness and internet addiction on anonymity in online, narcissism, depression, anxiety and adjustment to college life," Unpublished master's thesis,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2015.
- [28] Buffardi, L., Campbell. W. "Narcissism and social networking Web sit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vol. 34. pp. 1303-1314, 2008.  
DOI: <https://doi.org/10.1177/0146167208320061>
- [29] Ryan, T., & Xenos, S. "Who uses Facebook? An investigation into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ig Five, shyness, narcissism, loneliness, and Facebook usage," *Computers in Human Behavior*, vol. 27, pp. 1658-1664, 2011.  
DOI: <https://doi.org/10.1016/j.chb.2011.02.004>
- [30] Y. S. Lim, Y. J. Lee, S. J. Han. "Research on factors affecting the smartphone addiction of college students based on the GIA,"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5 pp. 56-66, 2016.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5.56>
- [31] S. H. Jang, Y. J. Park, "The Relations among Teenagers' Mental Health, Self-Control, and Self-Esteem according to their Mobile Phone Addiction", *The Journal of Korean Education Forum*, vol. 8, no. 3, pp. 25-41, 2010.
- [32] H. S. Jeon, O. J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Depression and Stress on Smartphone addiction among University Students: focused on Moderating Effect of Gender",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vol. 21, no. 8, pp. 103-129, 2014.
- [33] S. I. Ryu, I. S. Cho, "Factors affecting Smartphone Addiction amo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6, no. 9 pp. 6180-6189,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5.16.9.6180>
- [34] M. Y. Sim, D. N. Lee, E. H. Kim, "A Study on Influential Relations between Stress and Smartphone Addiction among College Students: With a Focus on the

Mediating Effects of Depression and Self-Efficacy,”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17, no. 5 pp. 227-236, 201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6.17.5.227>

---

이 영 미(Young-Mee Lee)

[종신회원]



- 2003년 8월 : 가톨릭대학교 간호학박사
- 2006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교수

<관심분야>  
간호학